

한국사료정보센터 (가칭)의 産室을 찾아서

양축가와 사료공장의 그동안 숙원이었던 사료가격의 자유화와 성분 한도량 고시의 일부 철폐등이 7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나라 사료 공업이 급성장할 수 있고 적어도 사료공업분야 만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 되었다.

지난 6월 12일 부터 6월 21일까지 이태리 로마에 있는 FA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 사료 정보 센터(International Network of - Feed Information Center 약칭 INFI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결정 됨으로써 서울에 (서울대 농대) 한국 사료 정보 센터(가칭)을 설립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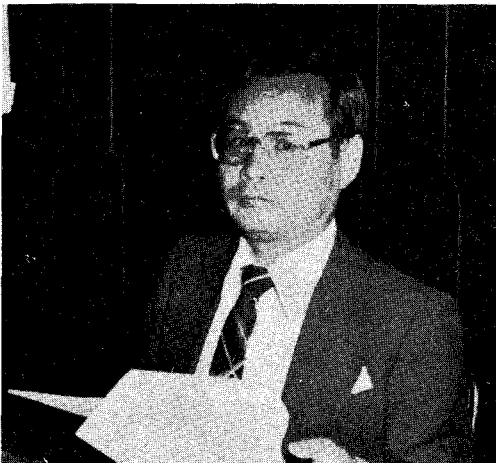
이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서울대 농대 한인규 박사를 찾아 보았다.

기자: 이번에 또 큰일을 하고 오셨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며 INFIC의 회원국은 몇 나라 나 됩니까?

한인규: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호주 코스타리카 아랍14국 에디오피아 필리핀 캐나다 홀랜드 덴마크 페루 이태리 필랜드 한국 등 17개국이 됩니다.

기자: 생각보다 의외로 회원국 수가 적은데 그 이유와 이번 총회의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한인규: 예를 들면 미국 한나라가 남미 아프



(한 인 규 박사)

리카 중동지역의 30여개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센타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 센타로 일본, 자유중국까지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첫째 신규 회원국 가입승인으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만장일치로 가입 승인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type 2 회원국(사료 성분표를 만들지 못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 나라)으로 가입되었는데 1년 이내에 type 1 국가(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로 될 것입니다.

둘째 이 기구는 72년에 창립 되었는데 이번에 정관개정(Constitution)통과가 있었고.

셋째 사무총장 선출이 있었는데 사무총장에는 호주의 국제 사료 정보센터 소장 Leich 박사가 되었습니다.

넷째 다음 총회는 호주의 CSIRO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섯째 한국 문제에 관한 것으로

1. 금년중에 가칭 한국사료정보 센터로 조직하여 서울대 농대내에 두며
2. 사료에 대한 과학 기술 협력을 위해 미국의 국제 사료 연구소장 Lorin. E. Harris 박사가 9월중에 내한하여 2주간 체류하면서 자문 지도를 하기로 하였고
3. Fortran으로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일사료정보 센터로부터 공급 받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KIST 축산시험장, 정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운영되어 질 것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끝으로 INFIC에 가입하므로써 가칭 한국 사료정보 센터가 하는일

과 우리가 얻는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인규: 첫째 세계각국의 사료성분정보를 교환 하게 되고

둘째 한국 표준 사료 성분표 제정을 하며

셋째 가소화 성분의 산출 방법을 교환하고

넷째 각 사료의 국제 고유번호 명칭을 도입하고

다섯째 최저 가격사료 배합을 작성 및 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데 독일 등은 이 업무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표준 사양관리 방법의 확립 및 제공을 하며

일곱째 각종 가축사양 표준 제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여덟째 사료및 사료제조 기술에 관한 각종 이론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학술 잡지도 발간하게 될 것 입니다.

기자: 현대를 정보시대라고들 하는데 이에 부족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배합사료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원료 구매에도 우선 큰 도움이 되겠군요.

우선 이를 운영 하는데 대한 준비는 되셨는지요?

한인규: KIST의 김창원박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호주에가서 6개월간 수련을 하는등 모든 준비는 완료 되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면 관계로 개략적인 것만 우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다음기회 있을때 이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등 자세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사료 축산업계가 과학화 되고 내실화 되어 알차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